

증권사 7곳 CEO 임기 끝... 실적·내부통제로 거취 갈릴듯

NH·한투 내부리스크 제동에 불안
미래·대신 무난한 실적 연임 유력
KB·하나 실적둔화로 교체 위기감
당국, 내부통제 강화·리스크관리 압박

국내 주요 10대 증권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증시 호황 속 실적 성과와 내부통제 리스크가 희비를 가리며 각사 대표들의 거취가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 중 CEO 임기 만료를 앞둔 곳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 총 7곳이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은 올해 연말, 나머지 5곳은 내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NH투자증권은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임기가 반 년도 안 남은 시점이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여의도 소재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기업금융(IB) 부문을 총괄하는 현직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2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10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 현황〉

〈2026년 3월 임기 만료〉						〈2025년 12월 임기 만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윤병운 NH투자증권	장원재 메리츠증권	오익근 대신증권	김성현 KB증권	이흥구 KB증권	강성목 하나증권

다.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여부까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자체는 뛰어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11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4651억원을 기록하면서 10% 늘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부통제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김성환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투증권은 올해 역대급 성과를 보이면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1조원을 넘겼다.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252억원, 영업이익은 1조14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4.2%, 48.1%씩 늘었다. 하지만 한투증권은 올해 상반기에만 5건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게다가 5년치 대규모 회계 오류도 발생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섭, 허선호 각자 대표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미래에셋증권은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내부통제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대표는 올해 3월에도 연임에 성공하며 임기가 1년씩 연장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6641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3% 급증한 성과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3조7475억원, 영업이익은 8466억원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보다 24.9%, 55.7%씩 증가한 수준이다.

장원재, 김종민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 메리츠증권은 장 대표의 임기 종료가 먼저 다가온다. 세일즈&트레이딩(S&T)·리테일(개인판매) 부문을 맡고 있는 장 대표의 핵심 프로젝트인 '수수료 완전 제로' 프로모션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내부 비리 사건과 남아 있는 이화전기 관

련 의혹은 부담으로 보여진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도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별다른 내부통제 이슈가 없었으며,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4.6% 성장한 152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연임을 방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은 오히려 후퇴했다. 두 증권사 모두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증권은 현재 각자 대표 체제로 김성현 대표는 IB·자산운용을, 이흥구 대표는 리테일을 담당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부문별로 희비가 갈린다는 것이다. KB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상반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9.9%, 11%씩 감소했다. 다만 리테일 부문은 상반기 영업이익 2146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상반기 1784억원 대비

20.3% 증가했다.

하나증권은 트레이딩 부문 수익부진과 해외자산 손실발생이 주요 원인이었다. 올해 상반기 하나증권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1068억원, 1188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18.6%, 26.1% 감소했다. 사실상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 역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인가 절차를 재개하면서 대형사들은 신규사업 진입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하고 있다. 새 정부가 미흡한 내부통제를 지적했던 만큼 증권사들도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CEO 교체 시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실적 윤곽은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대부분 IMA·발행어음 인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장 선정에서도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디지털자산, 미래 금융의 연결고리 될 것”

두나무,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 개최
기술·금융·시장·사람 잇는 다리 강조
케이스·채터튼 등 글로벌 리더 참여

“디지털 자산은 더이상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가 됐다. 오늘의 대화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를 넘어 미래 금융의 모습 자체를 재정의하는 여정이 될 것.”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30일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공식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Future Tech Forum: Digital Asset)'에서 이같이 밝혔다. APEC CEO 서밋에서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한 별도의 부대행사가 열리는 건 국내 최초다.

올해 '퓨처테크포럼'은 조선, 방산, 인공지능(AI), 미래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디지털자산'이 포함돼, 그간 실물 산업 중심의 논의가 이어져 온 APEC 무대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 포럼은 'Connecting the Future of Finance(미래 금융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AI,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등 디지털자산이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질서와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오 대표는 "연결이 곧 진보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 새 생태계의 출발점



오경석 두나무 사장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디지털 화폐와 국제 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포럼 기조연설은 '스테이블코인, A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가오는 대전환'을 주제로 마이클 케이스 MIT 미디어랩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수석 고문(겸 Advanced AI Society 의장)이 맡았다.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제도 융합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혁신'에서는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가 좌장을 맡아 루 인 솔라나 재단 총괄, 폴 블루스타인 CSIS 연구원, 마이클 케이스 수석고문이 참여했다. 블루스타인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달러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고, 루 총괄과 케이스 고문은 "법과 기술의 결합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

다"고 맞섰다.

두 번째 세션 '금융 포용: 언뱅크드를 연결하다'에서는 이사벨 채터튼 ADB 총괄과 엘리자베스 로시어로 AZA파이낸스 CEO가 금융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 '제도화와 융합'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대니 찬 마스터카드 CISO, 마이클 호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사회 의장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윤 CBIO는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업비트는 국가대표 거래소로서 산업 발전과 국제 논의를 주도해 한국 디지털자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이억원, 모험자본 공급 속도전 종투사 신속지정·공모펀드 강화

금융위, 종투사 지정·인가 병행
공모펀드로 국민투자 저변 확대
PEF엔 책임투자·신뢰 정착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모형 펀드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17개 증권사·운용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졌다"며 "우리 경제가 인공지능(AI)과 양자역학 등 초기 기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높고 개발 기간이 길며 초기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하는 자본이 필요하다"며 "모험자본 생태계의 최전선에 있는 금융투자업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된 종투사에는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종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와 개최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 대 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자금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이 IMA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4조원 이상 종투사인 삼성·하나·신한·메리츠·키움증권 등도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의 투자가 업권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